

2006년 포천시의회 종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노력

지난 5.31일 지방동시선거에 의해 출범한 제2대 포천시의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이란 슬로건 아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연간 80일 이내 회기중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80일의 회기를 운영해 포천시 특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10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정례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13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84건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137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5년도 예비비를 심의의결했으며 2006년도 세차레의 추경편성예산과 12월26일 폐회된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2007년도 예산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천 226억 3천 6백만 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4.0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천28억 9천 7백만원으로 10.97%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597억 3천 9백만 원으로 29.92%가 증가된 예



지난 5.31일 지방동시선거에 의해 출범한 제2대 포천시의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이란 슬로건 아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산중 ▷세출예산안중 대한민국 술축제 5천만원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28억 9천 766만원과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중 공영주차장 도색건 9천 6백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억9천 36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승인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제29회 임시회에서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목의원)를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댐 관련 시설물 등을 비교 견학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2007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연장하여 대전대학교 인준수 교수 등 댐 관련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목적댐의 필요성과 홍수조절용 댐과 장·단점에 대한 비교설명을 듣고 인준수교수 홍수 대책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에 대한 포천시민의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다목적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때 특별위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범 시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축소(군사분계선이남 25km→15km)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 건의문으로 채택한 뒤 청와대, 국회, 국방부등과 각 정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포천시의 관문인 축석고개 대전차 장애물과 소음에 있는 564단약중대를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다. 그리고 12월26일 여성회관에서 의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유관기관, 단장, 의정회원등 200여명을 초청해 의사종류 축하연을 끝으로 2006년도를 마감했다.

시의회 2대 의회 구성해 2006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년 도이니 만큼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쳐는 지, 또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하면서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회기동안은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물론 지역현안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은 대화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여론을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진정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위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잘 못된 부분에서는 시정 질문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의회, 일하는 의회로서 거듭날 것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어려운 이웃 포근하게 감싸요!”

일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만두로 사랑나눔

포천시 일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남·여 회장 김영석, 강한일)는 연말을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2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여 새마을 지도자 회원 50여명은 만두 5천개를 손수 빚고, 떡 300kg을 만들어 독거(부부)노인과 저소득층 등 100가구에 가구 당 만두 50개와 떡 3kg을 전달해 주었다.

이를 받은 한 어르신은 ‘집에서 손수 빚은 만두를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원들도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동안의



고생은 있고, 오히려 봉사를 통해 본인들이 보람을 느낀다며 즐거워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기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사항

포천시 130여명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포천시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과 생활 환경이 점차 오염되고 있고, 환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며, 21세기는 “환경

이라는 단어를 빼 놓고는 쾌적한 삶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시대임을 알리기 위한 12월26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일본의 후지산에 매년 1억명의 관광객이 왔다



포천에 반딧불이 서식 여건 조성 가능

자연보호헌장 28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회장 장재광)는 12월22일『자연보호헌장선포 제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풍잎·폐지폴레져사업과 반딧불이 증식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자연보호중앙총연맹총재,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의원 표창장 등 40명의 자연환경보전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장재광회장은

“그동안 실시한 새집달아주기, 다습기 방류사업과 단풍잎·폐지폴레져 사업에 대한 실적 및 문제점등을 영상자료로 발표하고 생태계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다짐하였으며 회원들과 시민의 지속적으로 참여”를 당부하였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포천에는 3종의 반딧불이가 서

기는데 담배꽂초 하나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듯이 우리시도 환경에 관하여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며,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병설형 신도시 건설 사업 및 민자 고속도로, 민간항공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포천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해 환경을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130여명의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참석했으며, 포천시의 환경관련 주요현황 및 발전방향과 대전대학교 박태술 교수의 대기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사항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이 끝난 후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박태술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하며 다습기 방류사업 등을 통하여 무주군에 뒤지지 않는 반딧불이의 서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재향군인회 환경정화운동 앞장

포천시재향군인회(회장 이광호)는 12월22일 회장을 비롯한 각읍면 동회장, 여성회원, 6.25참전유공자회원들과 연말을 보내면서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30여명이 참석하여 호병천일대에서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안전한 전기사용은 에너지절약의 지름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안병호 대표이사



변압기 부하 점검

전기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